

jewfri Brief

JEJU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85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2024년 11월 29일 | 발행인: 문순덕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시사점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연구개요
2.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평균차이 검증
3. 제주도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논의 및 시사점

1.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최근 공개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삶의 만족도와 행복 간의 관계는 긍정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복은 감정적인 측면으로, 삶의 만족도는 인지적인 측면으로 더 이해된다고 봄(Badri et al., 2022)
- Angus Campbell 외(1976)는 주관적 만족감의 정도에 따라 행복감을 측정했음. 인간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극대화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전제하며, 객관적 환경이 아니라 그가 인지한 환경에 반응하는데, 그러한 인지는 그가 속한 사회의 규칙과 기대와 같은 객관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기대감, 인성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음
- Veenhoven(1991)은 행복감을 자신의 전반적 삶의 질을 호의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자신이 지각한 욕구 충족의 정도를 의미하고 후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즐거움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음. 즉 만족도와 행복감을 배타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Easterlin과 Sawangfa(2009)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재정, 가정환경, 건강, 일을 꼽았음. 전반적 행복과 여러 영역별 만족과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드문 편이지만, Van Praag와 Ferrer-i Carbonell(2004)은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개인들의 차이가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있으며, 영역별 만족도 변인들이 객관적 조건들보다 행복을 더 잘 설명한다고 함(신승배, 2015 재인용)
- Easterlin(2006)은 생애주기를 통한 행복 연구에 영역별 접근법을 사용했음. Easterlin과 Sawangfa(2009)는 재정, 가정생활, 일, 건강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단순히 같은 행복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행복감은 높지만 만족도는 낮을 수도 있다고 주장함
- 이에 신승배(2015)는 Easterlin과 Sawangfa(2009)의 주장을 근거로 한국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검증한 바 있음. 그에 따르면 행복감은 삶의 각 하위영역(일, 가정생활,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 더 잘 설명되며, 영역별 만족도 가운데 가정생활 만족도가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배타적으로 구분하고 삶의 만족도 영역의 하위차원인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수단, 여가활동, 문화환경, 소비생활, 소득수준 등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함

1-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며, 독립변인으로는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수단, 여가활동, 문화환경, 소비생활,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이며 통제변인으로는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 소득, 직업 등임
- 분석자료 및 방법: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2023년에 수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조사 원자료이며,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기술통계, 평균차이검정(t/F-test), 상관 및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임
- 분석에 사용된 설문문항 및 측정척도

【 표 1 】 분석에 사용된 설문문항 및 측정척도

변인	문항내용	측정척도
삶의 만족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매우 만족한다). 11점 척도 ⇒ 5점 척도 변환	연속변인(1-5)
행복감	귀하는 어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다? (0=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 10=자주 행복했다). 11점 척도 ⇒ 5점 척도 변환	연속변인(1-5)
생활환경 만족도	1) 의료·보건 환경(병원, 의료시설 등), 2) 교육환경, 3) 수질환경(상수도, 식수 등), 4) 대기환경, 5) 문화·체육 환경(시설, 프로그램, 비용 등), 6) 교통환경(대중교통, 보행, 도로혼잡 등), 7) 전반적인 생활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연속변인(1-5)
주거환경 만족도	1)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2)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3) 안심생활 환경(치안 등), 4) 보행 및 교통안전, 5)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등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연속변인(1-5)
교통수단 만족도	1) 시내버스/마을버스, 2) 급행버스, 3) 공항 리무진, 4) 택시, 5) 선박, 6) 항공기 등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연속변인(1-5)
여가활동 만족도	1)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 정도), 2) 전반적인 여가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연속변인(1-5)
문화환경 만족도	1) 문화여가시설, 2) 문화프로그램(오프라인), 3) 문화프로그램(온라인), 4) 소요 비용, 5) 전반적인 문화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연속변인(1-5)
일자리 만족도	1) 하는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2) 임금/가구소득(일에 비해), 3) 근로시간, 4) 근무환경, 5) 전반적인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연속변인(1-5)
소비생활 만족도	귀하는 소비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연속변인(1-5)
소득수준 만족도	(만 19세 이상만)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연속변인(1-5)
성별	여성=1, 남성=0	

연령	20대=1, 30대=1, 40대=1, 50대=1, 60대=0
혼인상태	기혼=1, 미혼=1, 기타=0
교육	중졸 이하=1, 고졸=1, 대졸 이상=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1, 200~400만원=1, 400~600만원=1, 600만원 이상=0
직업	관리/전문직=1, 사무직=1, 판매서비스직=1, 농림/어업직=1, 기능/단순노무직=0

○ 분석 대상자 특성 :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구성비율도 높아져 남녀 모두 60대 이상(여성 33.4%, 남성 38.3%)이 가장 많고,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여성 57.9%, 남성 60.5%)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남녀 모두 대졸 이상(여성 41.4%, 남성 46.6%)이 가장 많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남성은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데 비해 여성은 200만원 미만 이 가장 많고, 여성의 과반수는 400만원 미만으로 남성보다 낮은 편이며, 직업별로는 남녀 모두 판매/서비스직(여성 40.2%, 남성 27.2%)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성은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이 많은데 비해 남성은 기능/단순노무직과 관리/전문직이 높음

【 표 2 】 분석대상자 특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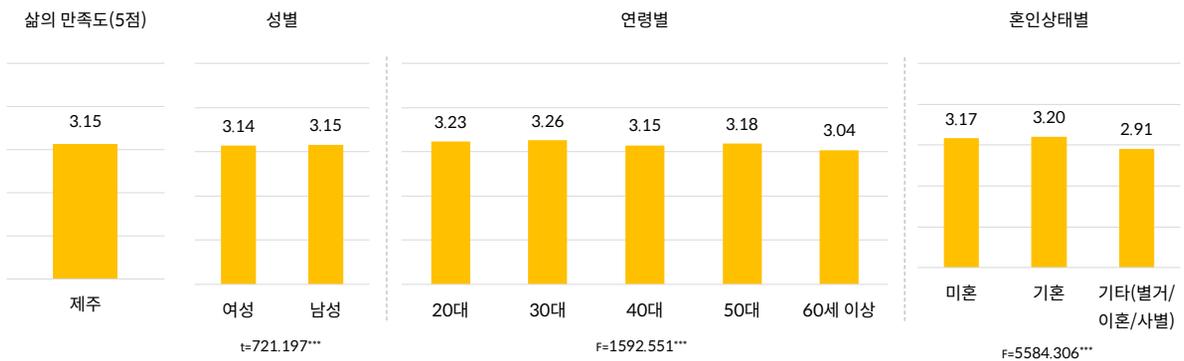
구분		여성	남성	계
연령	20대	35,427 (12.7)	40,281 (14.6)	75,708 (13.7)
	30대	38,959 (14.0)	39,768 (14.5)	78,727 (14.2)
	40대	54,031 (19.4)	56,100 (20.4)	110,131 (19.9)
	50대	56,859 (20.4)	61,066 (22.2)	117,925 (21.3)
	60세 이상	92,970 (33.4)	77,851 (28.3)	170,821 (30.9)
	계	278,246 (100.0)	275,066 (100.0)	553,312 (100.0)
혼인상태	미혼	64,691 (22.0)	87,153 (29.8)	151,844 (25.9)
	기혼	170,399 (57.9)	177,153 (60.5)	347,552 (59.2)
	기타(별거/이혼/사별)	59,240 (20.1)	28,486 (9.7)	87,727 (14.9)
	계	294,331 (100.0)	292,792 (100.0)	587,123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85,663 (29.1)	51,554 (17.6)	137,216 (23.4)
	고졸	86,880 (29.5)	104,826 (35.8)	191,706 (32.7)
	대졸 이상	121,788 (41.4)	136,412 (46.6)	258,201 (44.0)
	계	294,331 (100.0)	292,792 (100.0)	587,12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48,951 (36.6)	41,158 (19.3)	90,109 (26.0)
	200만원~400만원 미만	41,101 (30.7)	81,792 (38.4)	122,893 (35.5)
	400만원~600만원 미만	24,986 (18.7)	47,834 (22.5)	72,819 (21.0)
	600만원 이상	18,641 (13.9)	41,987 (19.7)	60,627 (17.5)
	계	133,679 (100.0)	212,771 (100.0)	346,449 (100.0)
직업	관리/전문직	32,325 (17.7)	44,706 (20.1)	77,031 (19.0)
	사무직	30,209 (16.5)	27,474 (12.3)	57,683 (14.2)
	판매/서비스직	73,528 (40.2)	60,459 (27.2)	133,987 (33.1)
	농림/어업직	21,682 (11.9)	35,786 (16.1)	57,468 (14.2)
	기능/단순노무직	25,138 (13.7)	54,043 (24.3)	79,181 (19.5)
	계	182,882 (100.0)	222,468 (100.0)	405,350 (100.0)

2.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평균차이 검증

2-1.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 검증

-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총 5점 중 3.15점으로 중간수준을 약간 상회하며, 성별로는 여성 3.14점, 남성 3.15점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0.01점 더 낮음
연령별로는 30대 3.26점, 20대 3.23점, 50대 3.18점, 40대 3.15점, 60세 이상 3.04점 순으로 3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3.20점, 미혼 3.17점, 기타(별거/이혼/사별) 2.91점 순으로 기혼이 미혼이나 별거 이혼 사별의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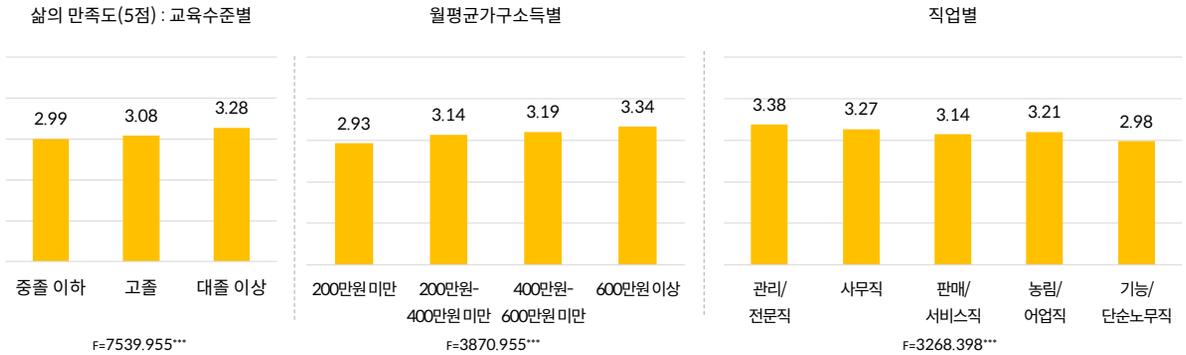
【그림 1】 삶의 만족도 - 전체, 성, 연령, 혼인상태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

-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3.28점, 고졸 3.08점, 중졸 이하 2.99점 순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대졸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 이상 3.34점, 400만원~600만원 미만 3.19점, 200만원~400만원 미만 3.14점, 200만원 미만 2.93점 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3.38점, 사무직 3.27점, 농림/어업직 3.21점, 판매/서비스직 3.14점, 기능/단순노무직 2.98점 순으로 관리/전문직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기능/단순노무직이 가장 낮음

【그림 2】 삶의 만족도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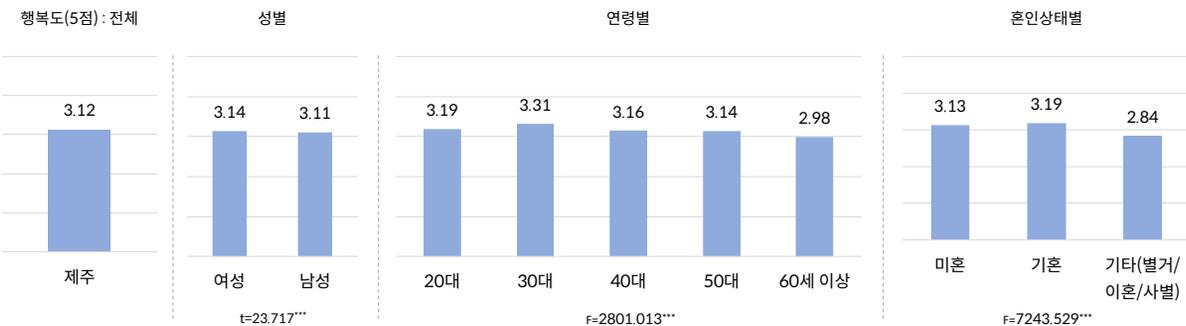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

2-2. 행복감 평균 차이 검증

- 제주도민의 행복감은 총 5점 중 3.12점으로 중간수준을 약간 상회하며, 성별로는 여성 3.14점, 남성 3.11점으로 여성이 0.03점 더 높음
- 연령별로는 30대 3.31점, 20대 3.19점, 40대 3.16점, 50대 3.14점, 60세 이상 2.98점 순으로 30대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음
-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3.19점, 미혼 3.13점, 기타(별거/이혼/사별) 2.84점 순으로 기혼이 미혼이나 별거/이혼/사별의 경우보다 행복감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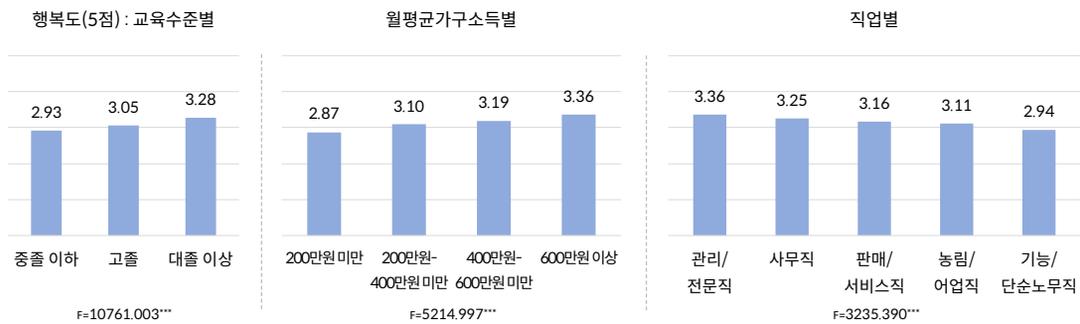
【그림 3】 행복감 - 전체, 성, 연령, 혼인상태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

-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 3.28점, 고졸 3.05점, 중졸 이하 2.93점 순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져 대졸 이상의 행복감이 가장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 이상 3.36점, 400만원~600만원 미만 3.19점, 200만원~400만원 미만 3.10점, 200만원 미만 2.87점 순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게 나타나 600만원 이상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이 가장 낮음
-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3.36점, 사무직 3.25점, 판매/서비스직 3.16점, 농림/어업직 3.11점, 기능/단순노무직 2.94점 순으로 관리/전문직의 행복감이 가장 높고 기능/단순노무직이 가장 낮음함

【그림 4】 행복감 - 혼인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도.

2-3.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하위차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차이 검증

- 제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차원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환경 3.54점, 생활환경 3.43점, 일자리 3.25점, 여가활동 2.93점, 문화환경 2.92점, 교통수단 2.88점, 소비생활 2.88점, 소득수준 2.81점 순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이며 소비생활과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음

【그림 5】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하위차원에 대한 만족도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도.

-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43점이며, 여성 3.43점, 남성 3.44점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남성이 더 높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53점)가 가장 높고 30대(3.31점)가 가장 낮음.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이혼/사별(3.54점)이 미혼이나 기혼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3.55점), 소득수준별로는 600만원 이상(3.54점),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3.47점)이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직(3.36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54점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3.43점)보다 높고, 성별로는 여성 3.55점, 남성 3.54점을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이 조금 더 높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69점)이 가장 높고 30대(3.36점)가 가장 낮음.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이혼/사별(3.57점)이 가장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3.66점),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 이하(3.71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3.74점)이 가장 높고 기능/단순노무직(3.4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2.88점이며, 여성 2.85점, 남성 2.92점으로 남성이 0.07%p 더 높음. 연령별로는 50대(2.99점)가 가장 높고 30대(2.84점)가 가장 낮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2.94점)이 가장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가장 높음.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아져 6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이 가장 낮음.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3.11점)이 가장 높고 기능/단순노무직(2.73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2.93점이며, 여성 2.89점, 남성 2.96점으로 남성이 0.07%p 더 높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03점)이 가장 높고 30대(2.81점)가 가장 낮음.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이혼/사별(3.02점)이 가장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2.98점)이 가장 높음.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400만원~600만원 미만(2.90점)이 가장 낮으며,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3.01점)이 가장 높고 판매/서비스직(2.85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2점으로 여가활동(2.93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여성 2.89점, 남성 2.95점으로 남성이 0.06%p 더 높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15점)이 가장 높고 30대(2.80점)가 가장 낮음. 혼인상태별로는 별거/이혼/사별(3.07점)이 가장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3.06점)이 가장 높음.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200만원 미만(3.13점)이 가장 높고 600만원 이상(2.80점)이 가장 높음. 직업별로는 기능/단순노무직(3.00점)이 가장 높고 사무직(2.84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3.25점으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에 이어 8개 하위차원 중 3번째로 높은 요인임. 성별로는 남녀 모두 3.25점으로 같고, 연령별로는 50대(3.28점)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3.22점)이 가장 낮음. 혼인상태별로는 미혼과 기혼, 기타가 모두 3.25점이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3.34점)이 가장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 600만원 이상(3.45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13점)이 가장 낮음.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3.43점)이 가장 높고 기능/단순노무직(3.0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81점으로 8개 하위차원 중 가장 만족도가 낮은 요인임. 성별로는 여성 2.80점, 남성 2.82점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남성이 조금 더 높고, 연령별로는 50대(2.91점)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2.75점)이 가장 낮음. 혼인상태별로는 기혼(2.86점)이,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 대졸 이상이 가장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 6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88점으로 소득수준과 함께 만족도 수준이 낮은 요인임. 성별로는 여성 2.85점, 남성 2.92점으로 남성이 0.07%p 더 높고, 연령별로는 50대(2.99점)가 가장 높고 30대(2.84점)가 가장 낮음. 혼인상태별로는 기혼(2.94점)이 가장 높고 별거/이혼/사별이 가장 낮음.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져 대졸 이상(2.98점)이 가장 높고 중졸 이하(2.76점)가 가장 낮음

【 표 3 】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하위차원 평균차이 검증 -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수단, 여가활동

구분		생활환경	t 또는 F	주거환경	t 또는 F	교통수단	t 또는 F	여가활동	t 또는 F
제주 전체		3.43	-	3.54	-	2.88	-	2.93	-
성별	여성	3.43	-3.969***	3.55	6.927***	2.85	-31.258***	2.89	-34.299***
	남성	3.44		3.54		2.92		2.96	
	계	3.43		3.54		2.88		2.93	
연령	20대	3.42	2297.498***	3.51	3217.050***	2.86	550.453***	2.89	1554.846***
	30대	3.31		3.36		2.84		2.81	
	40대	3.34		3.46		2.86		2.87	
	50대	3.43		3.56		2.99		2.98	
	60세 이상	3.53		3.69		2.89		3.03	
	계	3.43		3.54		2.89		2.94	
혼인 상태	미혼	3.43	1412.656***	3.50	429.287***	2.83	2659.973***	2.88	945.956***
	기혼	3.41		3.56		2.94		2.93	
	기타(별거/이혼/사별)	3.54		3.57		2.73		3.02	
	계	3.43		3.54		2.88		2.93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55	2806.717***	3.66	2432.998***	2.76	3704.610***	2.98	426.921***
	고졸	3.39		3.47		2.83		2.90	
	대졸 이상	3.40		3.54		2.98		2.93	
	계	3.43		3.54		2.88		2.93	
월평균 가구	200만원 미만	3.53	1218.695***	3.58	1617.105***	2.64	6348.027***	3.04	
	200만원~400만원미만	3.39		3.46		2.85		2.94	
	400만원~600만원미만	3.42		3.51		2.98		2.90	
	600만원 이상	3.54		3.71		3.21		2.99	
	계	3.46		3.55		2.88		2.96	
직업	관리·전문직	3.47	393.133***	3.56	1938.502***	3.03	2563.014***	3.01	486.828***
	사무직	3.41		3.54		2.98		2.91	
	판매·서비스직	3.36		3.45		2.85		2.85	
	농림/어업직	3.45		3.74		3.11		2.95	
	기능·단순노무직	3.42		3.42		2.73		2.92	
	계	3.41		3.52		2.92		2.92	

【 표 4 】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하위차원 평균차이 검증 - 문화환경, 일자리, 소득수준, 소비생활

구분		문화환경	t 또는 F	일자리	t 또는 F	소득수준	t 또는 F	소비생활	t 또는 F
제주 전체		2.92	-	3.25	-	2.81	-	2.88	-
성별	여성	2.89	-25.890***	3.25	3.334**	2.80	316.352***	2.85	780.302***
	남성	2.95		3.25		2.82		2.92	
	계	2.92		3.25		2.81		2.88	
연령	20대	2.82	2729.751***	3.25	80.359***	2.81	511.825***	2.86	550.453***
	30대	2.80		3.25		2.76		2.84	
	40대	2.83		3.24		2.81		2.86	
	50대	2.96		3.28		2.91		2.99	
	60세 이상	3.15		3.22		2.75		2.89	
	계	2.92		3.25		2.81		2.89	
혼인 상태	미혼	2.88	1026.271***	3.25	2.162	2.79	1824.826***	2.83	2659.973***
	기혼	2.91		3.25		2.86		2.94	
	기타(별거/이혼/사별)	3.07		3.25		2.64		2.73	
	계	2.92		3.25		2.81		2.8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6	1842.950***	3.14	3405.795***	2.64	4188.390***	2.76	3704.610***
	고졸	2.94		3.16		2.74		2.83	
	대졸 이상	2.86		3.34		2.93		2.98	
	계	2.92		3.25		2.81		2.88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3.13	1610.287***	3.13	1908.030***	2.41	11926.710***	2.64	6348.027***
	200만원-400만원미만	2.96		3.23		2.76		2.85	
	400만원-600만원미만	2.85		3.31		2.95		2.98	
	600만원 이상	2.80		3.45		3.29		3.21	
	계	2.94		3.28		2.81		2.88	
직업	관리·전문직	2.86	404.384***	3.43	2845.706	2.97	1710.493***	3.03	2563.014***
	사무직	2.84		3.39		3.00		2.98	
	판매·서비스직	2.90		3.21		2.77		2.85	
	농림/어업직	2.99		3.17		2.91		3.11	
	기능·단순노무직	3.00		3.09		2.67		2.73	
	계	2.91		3.25		2.84		2.9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

- 여성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남성보다 높고 나머지 하위차원 요인에서 남성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수단, 여가활동, 문화환경,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자리와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은 6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미혼은 주거환경, 여가활동,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기혼은 생활환경, 기타(별거/이혼/사별)는 교통수단, 일자리, 소득수준, 소비활동에 대한 만족이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졸 이하는 교통수단, 일자리, 소득수준,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고, 고졸은 생활환경, 주거환경, 여가활동, 대졸 이상은 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는 교통수단, 일자리, 소득수준, 소비생활이, 200만원~400만원은 주거환경, 400만원~600만원 이하 여가활동, 600만원 이상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사무직은 문화환경, 판매/서비스직은 여가활동, 기능/단순노무직은 주거환경, 교통수단, 일자리, 소득수준,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직군에 비해 낮게 나타남

3. 제주도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3-1.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 여성과 남성 모두 삶의 만족도의 하위차원,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등 23개 변인 가운데 22개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 하위차원 만족도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여성 50대에서, 남성은 40대와 50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혼인상태 변인에서 여성은 기혼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남성은 미혼과 기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교육수준에서 여성은 고졸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남성은 중졸이하, 고졸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음
 -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여성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남성은 200만원 미만과 200~400만원 미만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직업에서 여성은 판매/서비스직과 농림/어업직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남성은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모형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F=378.646$, $p<.001$), 삶의 만족도 전체 변량의 27.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위차원 만족도에서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수단(-), 문화환경(-), 일자리(+), 소득수준(+), 소비생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생활환경, 주거환경, 일자리, 소득, 소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교통수단과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바 이는 교통수단과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어려움이나 상대적인 기대감,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변인에서는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이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남성들에 비해 그 이하의 가구소득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여성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이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들은 높은 소득이 오히려 사회적 기대와 직업적 압박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함
- 직업 변인에서는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직(+),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기능/단순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기능/단순노무직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이는 사무직 남성들의 업무 스트레스, 사회적 압박감, 일 생활의 균형 문제, 사회적 인정 부족,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임을 추론케 함

【 표 5 】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여성(N=22,678)		남성(N=54,467)	
		r	β	r	β
하위차원 만족도	생활환경	.300***	.176***	.255***	.024***
	주거환경	.333***	.121***	.329***	.235***
	교통수단	.156***	-.074***	.175***	.048***
	여가활동	.185***	.015	.195***	.036***
	문화환경	.117***	-.043***	.131***	-.043***
	일자리	.344***	.204***	.294***	.130***
	소득수준	.302***	.082***	.219***	.055***
	소비생활	.369***	.133***	.300***	.149***
연령 (기준: 60세 이상)	20대	.056***	-.001	.007	.034***
	30대	.039***	.066***	.085***	.154***
	40대	.030***	-.075***	-.020***	.097***
	50대	-.113***	-.104***	-.037***	.025***
혼인상태 (기준: 기타)	미혼	.164***	.107***	.027***	.141***
	기혼	-.038***	.022**	.058***	.259***
교육수준(기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01	.009*	-.083***	-.029***
	고졸	-.072***	.000	-.099***	-.022***
월평균 가구소득(기준: 6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077***	-.065***	-.021***	.051***
	200~400만원 미만	-.043***	-.075***	-.088***	.050***
	400~600만원 미만	-.027***	-.054***	.018***	.042***
직업(기준: 기능/ 단순노무직)	관리/전문직	.064***	.092***	.177***	.162***
	사무직	.149***	.130***	-.057***	-.019***
	판매/서비스직	-.083***	.093***	-.024***	.079***
	농림/어업직	-.067***	.024***	.031***	.082***
R ²		.278		.248	
adj R ²		.277		.247	
F		378.646***		779.086***	

* p<.05, ** p<.01, p<.00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

3-2.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 여성과 남성 모두 행복감의 하위차원 만족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등 23개 변인 가운데 여성 21개, 남성 22개의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 하위차원 만족도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여성 50대에서, 남성은 20대, 40대, 50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혼인상태 변인에서 여성은 기혼이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남성은 기혼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교육수준에서 여성은 고졸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남성은 중졸이하, 고졸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음
 -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여성은 200만원 미만과 200~400만원 미만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남성은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직업에서 여성은 판매/서비스직과 농림/어업직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남성은 사무직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임
- 행복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모형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F=407.623, p<.001$), 행복감 전체 변량의 2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위차원 만족도에서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수단(+), 여가활동(-), 문화환경(+), 일자리(+), 소득수준(+), 소비생활(-)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이는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수단, 문화환경, 일자리, 소득수준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행복감이 높으며, 여가활동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행복감은 낮게 나타난 바, 이는 여가와 소비에 대한 만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내면의 자기실현이나 정서적 안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만족도가 높더라도 내적인 행복감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연령 변인에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즉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20대, 30대, 40대의 행복감이 더 높았으며, 50대는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음
 - 혼인상태 변인에서는 미혼(+), 기혼(+), 이혼(+), 사별(+), 재혼(+), 동거(+), 홀로살고자(+), 홀로살고 있음(+), 홀로살고 싶지 않음(-)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이는 기타(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이거나 기혼인 여성들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함
 - 교육수준 변인에서 중졸 이하(+), 고졸(-)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여성에 비해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인 여성에 비해 고졸의 여성은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 변인에서는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이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여성들에 비해 그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여성들의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음. 이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직업 변인에서는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직(+)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기능/단순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남성 또한 모형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F=705.830$, $p<.001$), 삶의 만족도 전체 변량의 2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위차원 만족도에서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통수단(-), 여가활동(+), 문화환경(-), 일자리(+), 소득수준(+), 소비생활(+), 등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생활환경, 주거환경, 여가활동, 일자리, 소득, 소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행복감이 높으며, 교통수단과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남성일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음. 이는 삶의 만족도에서 확인된 여성과 마찬가지로 교통수단과 문화환경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행복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연령 변인에서는 30대(+), 40대(+), 50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즉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의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음
- 혼인상태 변인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미혼(+), 기혼(+),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 이는 기타(별거/이혼/사별)에 비해 미혼이거나 기혼인 남성들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함
- 교육수준 변인에서 중졸 이하(-)와 고졸(-)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남성에게 비해 중졸 이하와 고졸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의 행복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 변인에서는 200만원 미만(+), 20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이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남성들에 비해 그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남성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음. 이 또한 여성과는 상반된 결과였음
- 직업 변인에서는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직(+),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기능/단순노무직에 비해 관리/전문직, 판매/서비스직,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행복감이 더 높고, 기능/단순노무직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음

【 표 6 】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여성(N=22,678)		남성(N=54,467)	
		r	β	r	β
하위차원 만족도	생활환경	.328***	.243***	.164***	.003
	주거환경	.303***	.120***	.262***	.225***
	교통수단	.226***	.055***	.037***	-.063***
	여가활동	.132***	-.076***	.171***	.120***
	문화환경	.167***	.057***	.047***	-.105***
	일자리	.307***	.228***	.232***	.073***
	소득수준	.197***	.033***	.232***	.100***
	소비생활	.186***	-.103***	.254***	.141***
연령(기준: 60세 이상)	20대	.031***	.083***	-.043***	-.010
	30대	.106***	.199***	.125***	.194***
	40대	.077***	.046***	-.018***	.093***
	50대	-.159***	-.023	-.023***	.054***
혼인상태 (기준: 기타)	미혼	.143***	.127***	-.004	.173***
	기혼	-.016**	.050***	.110***	.291***
교육수준(기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009	.095***	-.079***	-.020***
	고졸	-.120***	-.017***	-.116***	-.033***
월평균 가구소득(기준: 6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	-.232***	-.036***	.046***
	200~400만원 미만	-.084***	-.214***	-.124***	.011
	400~600만원 미만	-.007	-.202***	.037***	.026***
직업(기준: 기능/ 단순노무직)	관리/전문직	.106***	.146***	.147***	.135***
	사무직	.077***	.077***	-.052***	-.021***
	판매/서비스직	-.042***	.156***	.019***	.137***
	농림/어업직	-.036***	.050***	.016***	.079***
<i>R</i> ²		.293		.230	
<i>adj R</i> ²		.292		.229	
F		407.623***		705.830***	

* p<.05,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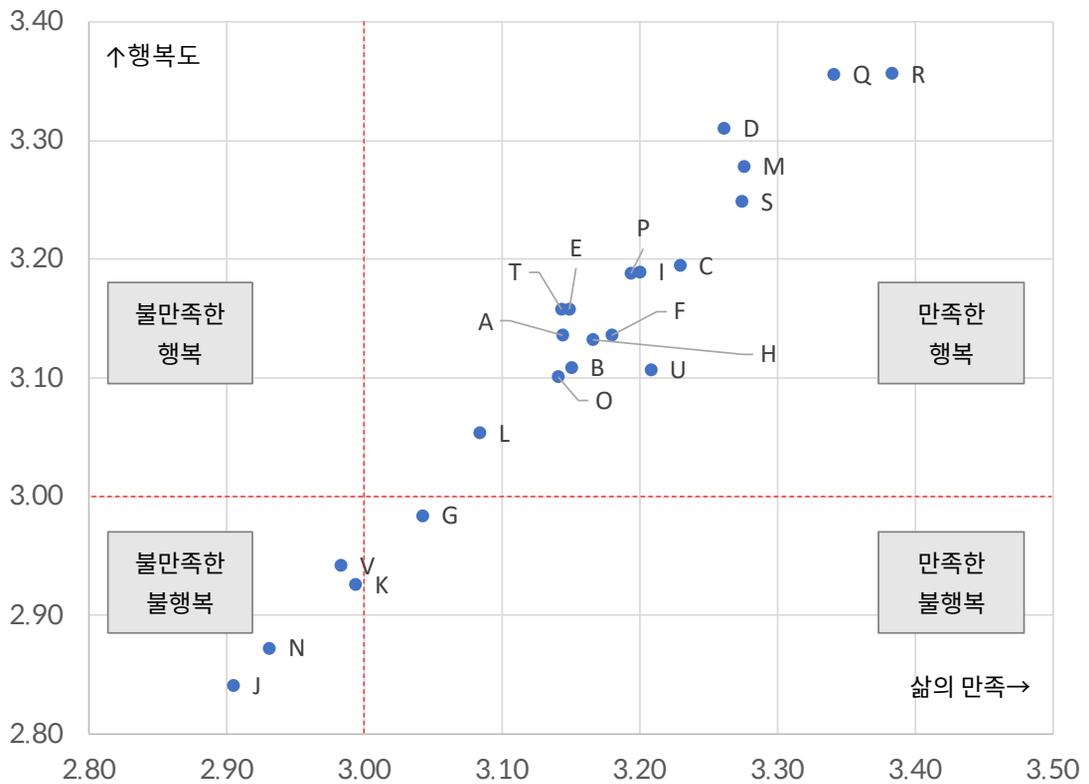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

3-3.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상호관계

-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상호관계는 4개 분면(3점 기준)으로 정리하면, 만족한 행복, 만족한 불행복, 불만족한 행복, 불만족한 불행복으로 나눌 수 있음
- ‘만족한 행복’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3점(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영역으로 이에 해당하는 특성은 여성, 남성, 20대, 30대, 40대, 50대, 미혼, 기혼, 고졸, 대졸 이상, 200만원~400만원 이하, 400만원~600만원 이하,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농림/어업직으로 나타남
- ‘불만족한 행복’은 삶의 만족도가 3점(보통)보다 낮고 행복감은 3점(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영역으로 이에 해당하는 특성은 나타나지 않음

- ‘만족한 불행복’은 삶의 만족도가 3점(보통)보다 높고 행복감은 3점(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영역으로 이에 해당하는 특성은 ‘60세 이상’의 도민이었음
- ‘불만족한 불행복’은 삶의 만족도가 3점(보통)보다 낮고 행복감도 3점(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영역으로 이에 해당하는 특성은 혼인상태가 기타(별거/이혼/사별), 교육수준 중졸 이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기능/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남

【그림 6】 삶의 만족과 행복감의 상호관계



주 : A 여성 B 남성 C 20대 D 30대
 E 40대 F 50대 G 60세 이상 H 미혼
 I 기혼 J 기타(별거/이혼/사별) K 중졸 이하 L 고졸
 M 대졸 이상 N 200만원 미만 O 200만원-400만원 미만 P 400만원-600만원 미만
 Q 600만원 이상 R 관리/전문직 S 사무직 T 판매/서비스직
 U 농림/어업직 V 기능/단순노무직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23)」 원자료 분석

4. 논의 및 시사점

4-1.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개선 필요

-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총점 5점 중 각각 3.15점(여성 3.14점, 남성 3.15점)과 3.12점(여성 3.14점, 남성 3.11점)으로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그럭저럭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음

4-2. 성별, 소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필요

- 특히,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서 여성은 교통수단과 문화환경, 남성은 문화환경, 도민의 행복감에서 여성은 여가활동과 소비생활, 남성은 교통수단과 문화환경 변인이 부(-)의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즉, 교통수단, 문화환경, 여가활동,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상대적인 기대감, 그리고 사회적·정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또한 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변인은 성별로 뚜렷하게 상반된 결과를 보였음. 즉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소득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성은 그 반대의 경우였음.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제주지역 중소기업 지원, 고용 불안정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중요할 것임. 또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도민이 보다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감 개선이 필요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모두 보통보다 낮은 ‘불만족한 불행복’ 영역으로 구분된 혼인상태에서 기타(별거/이혼/사별), 교육수준 중졸 이하,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기능/단순노무직의 제주도민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개선 노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보통보다 높고 행복감은 보통보다 낮은 ‘만족한 불행복’ 영역으로 구분된 ‘60세 이상’의 도민은 행복감 개선 노력이 필요한 대상으로 나타남

4-3.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

-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여러 방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먼저,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함.

또한, 여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평생 교육 기회를 늘리고 직업 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임. 더불어, 기후 변화 대응과 자원봉사 참여 장려 등의 정책은 도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은 종합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4-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도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접근 방식을 지향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관습보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제주지역 정책관련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조사 데이터 활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이 JEWFRI 브리프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문헌

신승배(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183~208.

제주특별자치도(2023), 「사회조사」, 원자료.

Badri, M. A., Alkhaili, M., Aldhaheri, H., Yang, G., Albahar, M., & Alrashdi, A. (2022), "Explor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adults-evidence from Abu Dhabi."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6), 1-14. <https://doi.org/10.3390/ijerph19063575>.

Campbell, Angus & Converse, Philip E. & Rodgers, Willard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Easterlin, R. A.(2006), "Life Cycle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 463-482.

Easterlin, R. A. & Sawangfa, O.(2009), "Happiness and domain satisfaction: new directions for the economics of happiness." In Dutt, A. K & Radcliff B.(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Edward Elgar.

Van Praag, Bernard M.S. & Ferrer-i-Carbonell, Ada(2004), *Happiness Quantified: A Satisfaction Calculus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Veenhoven, R.(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63278 제주시 산지로 27(일도일동)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